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 시로 노래하다

‘오늘, 우리들의 무등...’ 출간
조태일·문병란·김남주 등
69명 ‘무등산 시’ 69편 수록
시인 역사 인식·감수성 담겨



무등산을 노래한 시집 ‘오늘, 우리들의 무등-시로 읽는 무등산’이 출간됐다. 사진은 무등산 서석대.

조태일, 박봉우, 이성부, 최하림, 범대순, 김남주, 문병란...

이들 시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무등산’을 바라보며 무등산을 노래했던 시인들이라는 점이다.

무등산은 한국 근대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광주의 진산’이자 ‘광주의 어머니’다. 말게는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6·25동족상잔에서부터 가깝게는 군부독재와 5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그 지난고초의 역사가 산등선 굽이굽이 서려 있다.

그뿐인가. 의재 허백련, 화가 오지호, 오방 최홍중, 삼애다원, 해방직후의 화산탄광사건, 6·25와 빨치산, 무등산 타잔 박홍숙, 5월항쟁과 주남마을, 이철규와 제4수원지, 천왕봉과 군부대 등 수 다한 역사와 아픔이 서려 있고 반면에 문화와 예술이 깃들여 있다.

무등산을 노래한 시집 ‘오늘, 우리들의 무등-시로 읽는 무등산’ (문학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작품집은 오월문화연구소(소장 채희운)의 기획으로 출간됐다.

시집에는 작고한 고정희, 김남주, 문병란, 박봉우, 범대순, 이성부, 조태일, 최하림 시인을 비롯해 강인한, 박재구, 김준태, 김희수, 나해철, 문순태, 박두규, 염창권, 이대훈, 임동환, 최두석 신인 등 총 69명의 ‘무등산 시’ 69편이 수록됐다.

제1부 ‘무등산의 봄’에는 작고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무등산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들의 서정적인 감성과 빛나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반면 2부 ‘무등에 올라’, 3부 ‘무등의 사람들’, 4부 ‘무등을 향하는 연가’에는 각각 20편의 시가 무등산

의 역사, 인물, 삶 등을 모티브로 펼쳐져 있다.

조태일은 무등산을 ‘착함’, ‘용맹’, ‘부끄럼’을 가르쳐주는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보았다. 특히 무등산이 ‘어머니’ 산이라는 것을 무등산 아래 사는 사람보다는 “고향을 떠나본 사람은 알리라”라고 한다.

문병란은 무등산을 인간이 함부로 도달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게는 “올라도 올라도/다 못 오르는 산”이며 “두 팔 벌려 안아도 안아도/ 팔끝내 다 안을 수 없는 산”이 무등산이다. 그는 “무등산은 평등과 자유/ 동서남북 두루 열린/무문대도의 큰 덕산”이라고 한다.

김남주는 “그대가 앉으면 만산이 따라 앉고”, “그대가 일어서면 만파가 일어난다”고 노래해, 무



등산이 세상 만물에 대한 지휘력과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무등산을 민주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상징이라 여긴 것이다.

이번 작품집 편집을 맡았던 나중영, 조성국 시인은 “구전이나 기록을 통해 알려진 것은 물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연일지라도 그것이 무등산과 관련한 우리의 근현대사이고, 그것을 토대로 창작된 시라면 게재하려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백수인 시인(조선대 명예교수)은 시집의 해설에서 “무등산은 묵묵히 앉아 지나간 역사를 가슴에 품고 있고, 사람들은 그 가슴에 깃들여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역사와 삶이 시인들의 시 속에 스며들어 있고, 그 시들이 모여 무등산이 된다”고 평했다.

한편 이번 시집은 기존의 구전과 사료로 접한 무등산 역사와는 다르게 다양한 시인들의 역사 인식과 시적 감수성으로 재탄생한 무등산의 면모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이 오는 길목 브람스·드보르작 만나다

박승원 바이올린 독주회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가장조 작품번호 100’은 스위스 알프스에 머물던 여름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으로 힘차고 씩씩한 느낌을 준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김민주가 함께

제5회 박승원(사진)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브람스와 드보르작의 작품으로 꾸며진다.

첫 곡은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낭만적 소품 작품번호 75’다. 1887년에 작곡된 이 곡은 두 개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트리옌 ‘소품들’을 편곡한 곡으로 원곡보다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이어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번 가장조 작품번호 78 비의 노래’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가장조 작품번호 100’을 들려준다.

‘비의 노래’는 브람스가 작곡한 첫 바이올린 소나타로 그가 즐겨찾던 휴양지인 오스트리아 피르차흐에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게 하며 상쾌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한다.

한편 박승원은 5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했으며 빈 국립음대에서 공부했다. 이후 유럽에서 활동했으며 귀국 후에는 광주시향,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광주신포니에타 등과 협연했다. 현재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과 K아트앙상블 리더를 맡고 있다. 문의 010-3058-267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장애인예술지원협회가 선보인 전시회 ‘다시 봄 봄’

미술 작품전시회·온라인 미디어예술활동 편다

설립 3주년 맞은 광주장애인예술인지원협회

미술 작품 전시회, 온라인 미디어예술활동,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술 교실...

광주장애인예술인지원협회(회장 전자광·이하 협회)는 지난 2019년 2월 장애인 예술인의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창작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작품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왔다.

올해 설립 3주년을 맞은 협회는 최근 장애인 예술인의 예술권을 확보하고, 예술활동을 전문 직종으로 개발, 고용 창출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의력을 보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사업 ‘내 안의 피카소를 깨워봐’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들 안에 내재된 독특한 세계를 시각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예술

을 선보일 계획이며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을 진행, 장애인들이 전문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마다 진행해 온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올해도 기획, 다양한 작품으로 예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영상으로 아카이브하는 ‘온라인 미디어예술활동 지원사업’, 전업작가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스케치’ 프로그램 등도 진행한다.

전자광 광주장애인예술인지원협회 회장은 “발달 장애인의 특수한 예술적 가치를 발굴해 신진작가로서 키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 국악 뮤직비디오 ‘누구나 외판섬이다’ 공개

17일 유튜브·네이버TV 채널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오는 17일 오후 5시 공식 유튜브와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감상 국악 뮤직비디오 ‘누구나 외판섬이다’ (사진)를 공개한다.

존 던의 시가 ‘그 누구나 외판 섬이 아니다’라고 위조했다면, 이번 뮤직비디오에선 이를 역설해 ‘누구나 외판섬이다’로 제목을 정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함께 느끼고 공감할만한 ‘외로움에 대한 단상’을 대금 연주와 춤으로 새롭게 표현했다. 이는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단단함의 권리를 차단하는 무책임한 아프리카에 대한 경계를 의미한다.

‘누구나 외판섬이다’는 전남도립국악단 윤안현·문무진 단원이 직접 작곡하고 안무한 작품으로, 연주자 내면의 독백을 대금의 다양한 주법과 시김새(전통음악의 장식음)를 통해 자기 본연의 원초적 사운드를 극대화했으며, 무용이 음악적 스토리텔링을 도왔다. 여기에 류형선 예술감독의 감각적 연출로 두 단원의 복합적인 내면세계를 이끌어냈다.

한편 전남도립국악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누구나 외판섬이다’ 공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튜브 채널에선 국악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영유아, 초등학교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 등을 지속 방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980-995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